





데모클럽 : VERY FRONT

2024

데모클럽 : VERY FRONT

발 행 | 2024년 12월 24일

저 자 | 베리프론트 운영위원회

이메일 | veryfrontofficial@gmail.com

[www.veryfront.net](http://www.veryfront.net)

© 베리프론트 2024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데모클럽 :

# VERY FRONT

우리의 목표와 방법



# CONTENT

|     |   |
|-----|---|
| 우리는 | 1 |
|-----|---|

## [우리의 목표와 방법]

|                     |    |
|---------------------|----|
|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 3  |
| 제도권 정치 너머 아래로부터의 운동 | 8  |
| 사회 변화의 키로서의 노동계급    | 13 |
| 활동가 조직의 역할          | 18 |
| 사회변혁을 위한 페미니즘       | 23 |



## 우 리 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온갖 불평등과 차별, 빈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 이주민 혐오, 전쟁, 기후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면서, 현재의 운동 안에서 변혁적 대안을 추구하는 새로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읽고 쓰고 투쟁에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우리는 현실에서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데모클럽 : 베리프론트**는 정기적으로 글을 발행하고, 토론 모임을 엽니다.

주말에는 집회도 같이 참여합니다.

이 사회의 대안, 운동의 진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veryfrontofficial](http://www.instagram.com/veryfrontofficial)

**이메일**

[veryfrontofficial@gmail.com](mailto:veryfrontofficial@gmail.com)

**우리의 목표 :**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 **통과점에 불과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도, 운명도 필연도 아닙니다.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노예제, 봉건제 등)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해왔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체제에서 살아왔다면, 미래에도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를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1순위 문제는 단연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 재난이 벌어지면 수 천 만 명, 수 억 명이 목숨을 잃고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기후재난을 막으려면 과잉생산을 통제하고, 각 국가와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적극 규제하면서 공공 교통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들은 허울뿐인 그린워싱 정책을 시행할 뿐입니다. 자본주의 이윤논리로 인해 생긴 기후위기는 자본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뿐 아니라 전 생태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이렇게 체제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힘 없고 빈곤한 순서로 사람들이 희생 당할 것입니다. 이 점은 단지 기

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윤만 바라보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수십 년째 계속되는 불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한 편에는 너무나 많은 부가 넘쳐 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초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한 채 빈곤에 고통 받습니다. 빈곤이 싫으면 미래의 불행을 담보로 빚을 내서라도 현재의 생존을 사야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 다수는 ‘국가 위기’, ‘경영 위기’가 찾아와도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에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잃는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월급 봉투가 얇아지는 것도,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것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회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고, 부자들은 그들 노동에 올라타 이윤을 얻는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가장 먼저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전선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영속화하고, 백래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를 향한 불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권력자들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사람들을 더욱 갈라치기 합니다. 권력자들과 대중 매체는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차별받아 온 사람들을 혹독하게 멸시하면서, 모두의 삶이 나빠지는 것은 그들이 과분한 대우를 요구하는 탓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들의 처지가 나빠지면 결국 조만간 다른 사람들의 처지도 함께 나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부자와 권력자들은 진실을 숨기기 바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결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득권을 해체해 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향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짜 이익과 권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사회, 이윤 논리가 아닌 민주적 논의로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결정되는 사회, 우리를 착취해서 배불린 부자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권력자들이 우리를 밀어 넣은 뒤 그어둔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 우리

에게는 이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연대와 평등이 제1덕 목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평범한 사람들끼리 제한된 몫을 두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도 궁극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알량한 선의에 의존하는 ‘더 나은 자본주의’, 극히 드문 경제 호황기의 기억에 취하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는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러한 투쟁들이 최종적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길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할만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 :

제도권 정치 너머 아래로부터의 운동

### 오늘날 제도권 정치는 자본주의와 한 몸

국회의 입법이나 개헌, 진보적 대통령 선출을 통해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오늘날 제도권 정치는 형식적으로 투표권만 동등하게 부여할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생산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부 관료, 고위공무원, 판사

와 검사, 경찰의 지휘부 등 인사들은 모두 이 사회의 지배계급이고, 기업 경영자-소유주와 하나의 그룹으로서 상부상조하며 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 제한투성이 선출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을 다루는 수많은 자리 중 오직 행정부 수장(대통령)과 의회(국회의원)만 선거로 대중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권력자 자리가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그들의 선거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유력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선에는 대중매체를 가진 권력자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즉 이미 지배계급의 일원입니다. 지배계급의 일원이 아닌 ‘서민적 진보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 하려면 기득권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압력을 계속

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선출 이후 통제 불능

게다가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중은 이들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려 달콤한 말들을 던지지만, 당선 후 그 약속을 대체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선출된 정치인들을 징계하거나 통제하거나 소환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이 없다면 정치인들의 권력은 임기 내내 보장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10초만 작동하고, 대중의 의사는 다음 선거까지 정치라는 무대에서 다시 퇴장 당하는 것입니다.

##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힘이 더 크다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만큼이나 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회의 사법부 권력자들은 전혀 선출되지 않습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군대 등 유사시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중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리더들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

하는 고위 행정관료 공무원들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 기구의 책임자들은, 임명권이나 지휘 체계 등을 보았을 때 의회나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출된 의회나 정부도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나 정부가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물리적 힘이 필요합니다. 군대와 경찰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개혁적인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슬하게 일어나고, 그런 타협을 거부하는 정부가 이들의 보이콧으로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자본주의 제도권 정치의 근본적 한계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국가의 역할 그 자체에서 옵니다. 자본주의에서 각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전 지구적 경쟁 속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의 책임자들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자본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은 국가기구의 군비 경쟁과 운영 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제 권력자들이 국가기구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때로 특정 기업과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결코 자본가 집단 일반의 이익에 반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스스로 폐지하거나, 이들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운동, 정치인들에 기대어 투표에 머물지 않는 운동,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 :

사회변화의 키로서의 노동계급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 파업

대중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온 순간, 자본주의 사회가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내세우는 때에도, 정부와 기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동이 정부와 기업을 강제하려면 집회와 시위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사업장 하나의 파업만으로도 그 사업장에 연계된 다른 사업장과 산업 부문,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경계를 넘어 노동자 다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중 파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중 파업은 거대한 개혁이나 혁명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 노동계급의 중요성

누군가는 기술의 발전과 AI의 등장으로,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들의 등장으로, 노동자가 기업과 맺는 계약 형식과 노동 방식의 변화로, 심지어 자본에 의한 노동유연화로 인해 노동계급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파업을 벌일 힘과 가능성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다루고 기술의 틈새를 메울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서 자본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이윤을 얻는 사람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노동력밖에 없어 기업에 자신의 시간과 노

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전자의 사람들을 ‘자본가’로, 후자의 사람들을 ‘노동계급’으로 불렀습니다.

노동계급만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스스로 통제할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위해 일손을 멈춰 자본주의를 바꿀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 사회에서 고통받지만, 그들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일부이므로 자본주의의 폐지를 주장할 동기가 없습니다. 잠재적 노동계급인 실업자나 구직자들 역시 빈곤에 시달리지만, 이들은 파업을 통해 자본의 이윤 추구를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은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 노동계급의 잠재력이 실현될 때

노동계급의 다수는 평소 투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자 상당수는 이 사회에서 흔히 유통되는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취업과 이직 경쟁, 기업 내 성과 압력 속에서 원자화되어 있기 쉽고, 어렵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어떤 기업이 나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률이 제도권 정치에서 통과되거나, 물가가 막대하게 인상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저항의 계기들을 끊임없이 발생시킵니다. 또, 정치 개혁 운동이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져 노동자들에게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들은 더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자신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투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경험을 통해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 새로운 사회 질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생산 현장을 통제하면서 운동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해보는 경험은, 노동계급이 새로운 사회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갖는 이러한 잠재력

과 저항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노동계급은 희생과 차별을 강요받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체제를 바꿀 힘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입니다. 우리는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인 노동계급 속에서 운동과 조직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방법 :

활동가 조직의 역할

### 노동계급 의식의 모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계속되는 경제위기가 그러한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계급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계급의 사상

은 노동계급의 자기검열을 부추깁니다. 노동계급은 사회에 강한 불만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그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스스로 투쟁에 나서기보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나 정치인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전된 자본주의 정치 제도 안에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불만을 대변하면서도 그 불만이 운동으로 표현될 때 이를 일정 정도로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운동의 폭발력을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흡수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합법적 제도 안의 개혁지향 조직들이 노동계급을 거둬 실망시키면, 노동자들은 사회 진보에 대한 냉소와 좌절 속에서 개인의 생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더 나아가 차별과 혐오, 극우 정치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 운동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

노동계급 의식의 모순은 투쟁의 발생 여부와 양상, 요구의 내용 뿐 아니라 벌어진 운동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계급 안에도 더 급진적인 사람이 있고, 더 온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스펙트럼은 모든 사안에서 개인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이나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급 내 의식의 불균등성이 운동 내부의 논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파업을 했는데도 자본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딱지 붙이면서 경찰을 불러들였다면?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조합원 10%만 해고할 테니 이제 파업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투쟁하는 당사자들 다수가 이러한 기로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분명 운동의 성과와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계급의 실천과 의식에 개입할 활동가들의 존재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폐지라는 급진적 결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대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승리하려면, 운동의 진로를 둘러싼 선택과 논쟁에서 더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자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활동가들의 역할이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하는 ‘참여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애쓰는 ‘조직가’여야 하고, 운동의 진로에 대한 우리 안의 논쟁에 개입하는 ‘토론자’여야 합니다. 활동가들은 노동계급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내놓고, 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한 교훈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활동가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혁명적 정치가 노동계급의 투쟁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실천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우리는 노동계급이 스스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의회를 겨냥하는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의 한복판에 서기를 바랍니다. 노동계급이 가진 정치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망이 당연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급 대중 속에 뿌리 내린 활동가들의 조직, 그것도 상당히 크고 유능한 전

국적-국제적인 조직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조직은 하루아침에 결성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활동가들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상식을 거슬러 급진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활동가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노동자들에게 사상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거나,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에 실망해 현실 운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급진적 정치를 주장하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개혁주의 세력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원칙과 사상을 견지하면서도, 투쟁하는 대중의 정서와 유연하게 공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운동 안의 유의미한 급진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 대중 조직의 씨앗이 될 활동가 네트워크를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활동가들이 이러한 조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

사회변혁을 위한 페미니즘

### 현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적 차별과 억압적 규범,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직장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까지 도맡아야 하는 역할로,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취급 받기 일쑤입니다.

## 정상 가족 제도와 자본주의

이 모든 부조리한 일들의 중심에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 가족 제도는 바로 이러한 관념을 더욱 확대하는 구실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는 핵가족 안에서 출산과 보육, 휴식과 가사, 간호와 돌봄 등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생산의 짐을 여성들이 모두 짊어지는 것은 자본에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가족 제도를 지키기 위해 그 규범에 벗어나는 성소수자들 역시 배척하고 차별합니다. 성 역할이라는 관념을 뿌리 뽑으려면 가족 제도라는 사회 구조부터 재편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 성 산업과 자본주의

한편, 자본주의에서 공기처럼 퍼져나간 성 산업 역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대상화, 성적 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구실을 합니다. 성매매, 포르노부터 온갖 인터넷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사업, 광고 등 수많은 곳

에서 여성의 성은 역사의 그 어떤 시기와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상품화되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인식은 계속 왜곡되고, 여성들은 스스로를 성 산업의 획일적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주체성이라는 착각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인해 성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마치 개인들의 자유로운 성적 실천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형식적 규제나 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성 산업을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성을 구매하려는 사람과 판매하려는 사람을 대거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문제적 개인들만 규율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성평등과 여성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재생산 노동을 여성이 아닌 사회 공공 영역이 부담하는 사회, 성 산업을 폐지시킨 사회, 이러한 새로운 토대 위에서 대중의 성평등 감수성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사회, 평범한 여성들의 의사가 강력한 정

치적 힘을 가지는 사회, 투쟁하는 소수자들과의 연대가 상식이 된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목표로 합니다.

### 평등과 단결을 위한 방법

페미니즘은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자본주의 안에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 속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 안에서조차 차별과 혐오, 폭력이 무기력하게 용인된다면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불신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운동 안에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평등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도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사회가 부여한 위계로 인해 개인들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운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권력관계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운동의 질문에 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별과 성 지향, 인종과 민족, 종교, 장애 여부, 나이와 경력 등 무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계급의 단결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만 쟁취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